



# STL MARKET REPORT

## Weekly Focus No.463

**August 01, 2023**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 Contents

News	1
Bulk Carrier	7
Tankers	11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6
Key Indicators	19
Issue & Trend	21
Contact Details	22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I . NEWS

### 1. 2 분기 해양금융투자 전년비 40% 증가한 193 억불

올해 2 분기 해양금융 투자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분기에도 설비투자 증가로 해양금융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 24 일 발표한 '글로벌 해양금융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 년 2 분기 해양금융 투자는 컨테이너와 해양플랜트에 집중되었고, 전년 동기비 40.7% 증가한 193 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기간 10 억달러 이상 딜(DEAL)은 컨테이너와 해양플랜트 인수합병(M&A) 각 1 건, 탱커와 인프라론(LOAN) 각 1 건, 해양플랜트 본드(BOND) 1 건 등이다. 전분기에 이어 2 분기에도 M&A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탱커와 인프라에서 대규모 신디론 차입으로 LOAN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의 M&A 사례를 보면 지난 3 월 SEMBCORP MARINE LTD.이 KEPPEL CORP.을 33 억 2700 만달러에 인수하면서 싱가포르 최대 해양플랜트 건설 기업이 탄생했다. 같은달 컨테이너선사인 SEASPAN 의 모회사 ATLAS CORP 이 POSEIDON ACQUISITION CORP.에 109 억달러에 인수되며 NYSE 에서 상장 폐지됐다.

4 월에는 SEADRILL LTD 이 해양플랜트 사업 시너지 증대를 위해 동종업계 경쟁사인 AQUADRILL LLC 를 12 억 4300 만달러에 인수했다. 같은달 BROOKFIELD INFRASTRUCTURE PARTNERS 는 컨테이너 임대/관리 서비스 기업인 TRITON INTERNATIONAL 을 47 억달러에 인수했다. ALTERA INFRASTRUCTURE (옛 TEEKAY 자회사)는 2022 년 8 월에 시작한 CHAPTER 11 프로세스의 구조조정을 19 억 5000 만달러를 들여 완료했다.

LOAN 사례를 보면 4 월에 UAE 항만 터미널 운영사 AD PORTS GROUP 은 이집트 등의 항만 개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15 개 은행으로부터 신디케이트론(20 억달러)을 차입했다. 같은달 세계 최대 벙커링 회사인 BUNKER HOLDING GROUP 이 사업 확장을 위한 신디케이트론(11 억 1000 만달러)을 차입했다.

BOND 사례를 보면 지난 6 월 NYK 는 해저 케이블 준설선의 친환경 연료 전환 등 친환경 선대 구축을 위한 전환사채(14 억달러)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2 분기 해양금융 동향과 관련해서 선종별로 해양플랜트가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노력으로 인해 신규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러-우 전쟁에 따른 LNG 공급망 변화와 더불어 사우디가 러-중과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미국의 유전/가스전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 I . NEWS

또한, 컨테이너는 지난 분기에 이어 대형 M&A 영향으로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고, 이밖에는 선대 확장을 위한 투자로 분석됐다. 컨테이너는 시황 약세 지속으로 인해 M&A 1 건 외에는 전반적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2 분기 녹색금융 투자는 BUNKER HOLDINGS GROUP 의 ESG 연계 대출(11 억달러)이 이루어지면서 전분기 대비 증가를 보였다. 또한, MISC BERHAND(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PETRONAS 의 자회사)는 VLEC(초대형 에탄올 운반선) 6 척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연계대출(5 억달러)을 차입하였으며, MOL 은 UN 의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해 만기 7 년 기간 대출(6 억달러)을 차입했다.

보고서는 3 분기 해양금융시장 전망과 관련해 "미국과 중동의 관계가 악화되는 반면, 중동이 러시아,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등 석유 공급망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LNG 플랜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글로벌 해양플랜트 투자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탄소중립 브릿지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망 다각화에 따라 LNG 관련 설비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진단했다. 천연가스 공급원을 다각화하는 유럽을 중심으로 LNG 수입을 위한 재기화 설비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미국 LNG 수출기업이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한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LNG 수출관련 설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카타르의 LNG 수출 공급 증가 계획에 따라 액화 설비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해운업 탄소중립 계획이 앞당겨지면서 미뤄왔던 친환경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국제해사기구(IMO) 제 80 차 MEPC 결과 해운업 탄소중립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강화되는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선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비용 조달을 위한 녹색금융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특히, 보고서는 친환경 선대 전환에 따라 선박 추진 연료도 다각화되면서 선박용 연료 밸류체인 재편에 따른 신규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병커링 기업의 사업 영역 전환을 위한 자금 수요와 항만 내 대체 연료 인프라(연료 저장 탱크 등) 투자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 I . NEWS

### 2. "OPEC+ 해체되면 유가 35 달러로 내릴 수도"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자들은 OPEC+의 해체가 글로벌 유가를 35 달러 정도 수준으로 하락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한 전망이지만 추세가 이 방향으로 전개될 때 세계 정치와 경제의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재미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자들은 그 전제 조건으로 세계 석유 수요 증가 둔화와 원유 생산 정책에 대한 반대로 인한 OPEC+ 동맹의 해체를 거론한다. 이 기구의 해체는 담합을 사라지게 하고 경쟁체제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원유 가격을 35 달러까지 폭락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투자 그룹 클린에너지 트랜지션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27 일(현지시간)에 세계 석유 수요 증가 둔화와 원유를 인위적으로 생산, 감산하는 가격 정책에 대한 반대가 OPEC+ 동맹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유가를 배럴당 35 달러까지 하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이 투자 그룹의 매니징 파트너인 퍼 레칸더는 하락하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간이라고 보았다. 그는 "석유 수요 증가가 희박하거나 부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은 지금은 협력 관계인 OPEC+와 러시아, 수십 개의 비석유수출국기구 생산국 간의 협력을 해체할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 이 동맹은 현재 거의 7년 동안 석유 시장 공급을 관리하고 있다.

그가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사례가 근거가 된다. 현재 석유 시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가를 인상하려고 감산을 주도하고, 러시아도 이에 편승하고 있다. 하지만 감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유가 인상이 기대만큼 진행되지 않자, 중동 산유국을 대표하는 쿠웨이트, UAE는 증산을 발표했다. 이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러시아도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공조하면서 감산하고 있지만,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 발생하는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려면 계속 감산할 수는 없다. OPEC+가 결성되기 전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석유를 과다 생산하면서 상대가 먼저 굴복하기를 바라는 석유 싸움을 펼치기도 했다.

더군다나 아직 석유 자원을 대체할 정도로 성장한 것은 아니지만 태양광, 배터리, 원자력, 풍력 등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30년까지 전기차의 보급 확대는 일일 석유 소비량을 500만 배럴 정도 줄일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가 14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IEA는 이렇게 되면 일일 석유 소비량을 약 500만 배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I . NEWS

석유의 수요가 줄면 가격이 오를 수가 없고, 국가 수입의 주요 원천이 석유뿐인 산유국들은 결국 감산이 아니라 증산을 통해 국가의 수입을 달성할 수밖에 없어 담합은 깨질 수 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석유 파동이 있었던 1974년 이후 유가가 인위적으로 너무 높았다”라며 “여러 변수로 동맹이 깨지면 가격 폭락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카르텔이 작동할 수 없다면 단기적으로는 35달러, 중기적으로는 아마 45달러로 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투자기관의 전문가 예측은 가능성을 말한다. 하지만 이는 실현될 경우 큰 변화를 촉발할 것이다. 석유 관련 산업 전반의 변화는 물론이고 인플레이션 하락, 중동의 지정학적 가치 변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OPEC+은 적어도 공개적으로 석유 수요 변동에 대해 우려하지 않고 있다. 2023년 석유 수요 증가 추정치를 지난달 전망 대비 일일 10만 배럴 상향 조정했다. 장기적으로 2045년까지 세계 석유 수요가 일일 1억 1000만 배럴 정도로 증가할 것이고, 에너지 믹스의 약 29%를 차지할 것으로 본다.

운송 분야의 석유 사용 외 화학 분야 등의 사용이 증가해 전기차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유 사용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쿠웨이트, UAE, 이란 등 중동의 핵심 석유 생산국들은 장기적으로 석유 시대가 힘을 잃을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이들은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해 국부펀드를 통해 채권이나 금, 부동산 등 안전 자산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위험 자산에 대한 직·간접 투자를 늘려 가고 있으며, 자국을 관광과 미래산업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 3. "지구가 부글부글 끓는다"...전 세계 '히트플레이션' 주의보

지구가 끓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이 이상고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 평균 기온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해, 이번 달이 역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됐다. 온열질환자에 사망자도 속출하는 상황이다.

폭염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폭염으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손실은 최대 3조 달러, 우리 돈 4000조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 추산까지 나온다. 이번 폭염은 지구촌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작용이 물류와 에너지, 노동생산성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는

## I . NEWS

관측이다. 최악의 폭염으로 인한 이른바 '히트플레이션(HIT+INFLATION)'이 지구촌 경제에 경고등을 울렸다.

### 50도 불볕더위에 역대급 폭우... "끓는 지구의 시대"

31일 한국은 찜통더위 한 가운데 있다. 폭우를 쏟아 부은 장마철이 끝나자 본격 무더위가 찾아왔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면서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사흘 동안 온열질환자만 178명 발생했고, 폭염으로 숨진 사람만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대기 불안정성이 심해지면서 곳곳에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져, 일부 지역에선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전 세계 상황도 비슷하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이달 7일 기록한 세계 평균 기온은 17.24도로, 역대 최고였던 2016년 8월 16일의 16.94도를 넘어섰다.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달로 기록됐다. WMO 측은 "올해 7월은 지구가 가장 더웠던 달로 확인될 것"이라며 "앞으로 5년 중에 올해 7월보다 더운 날씨가 찾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웃 국가인 일본은 지난 6월부터 40도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중국도 폭염이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섭씨 50도에 근접하거나 넘어섰다. 미국과 유럽의 다수 국가 역시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대형 산불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해수 온도를 높여 '엘니뇨 현상'도 유발했고, 이는 지구 반대편 인도에 '역대급' 폭우를 유발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낳았다.

해마다 지구의 온도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을 넘어 끓는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27일(현지 시각)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가 끝나고 '끓는 지구'(GLOBAL BOILING)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기후변화 현상이 진행 중이고, 두려운 상황이며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 "폭염으로 21세기 동안 11경 경제 손실"

문제는 폭염이 경제 사이클 전반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폭염 때문에 곡물이나 채소 등의 재배가 어려워지고 가축들이 폐사하면 식품 공급이 줄어들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 학계에선 이를 '히트플레이션'이라 부른다. 실제 지난해 발표된 현대경제연구원의 '추가적 인플레이션, 폭염' 보고서에 따르면, '히트플레이션' 영향으로 평균 물가상승률이 0.2%포인트 더 올라갔다. 전 세계적 고물가 상황이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히트플레이션'까지 가속화하면, 지구촌 경기에 빨간 불이 켜질 것이란 게 학계의 시각이다.

## I . NEWS

---

뿐만 아니라 폭염은 생산성도 떨어뜨린다. 국제노동기구(ILO) 연구에 따르면, 폭염의 영향으로 2030년까지 매년 전 세계 총 노동 시간의 2% 이상이 손실될 것으로 예상했다. 농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폭염이 약 8000만 명의 정규직 일자리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ILO의 전망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폭염으로 인해 2100년까지 전 세계 GDP가 2020년 대비 17.6%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역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4000조원 규모의 막대한 손실이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지난 5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된 저스틴 맨킨 미국 다트머스대 지리학과 교수 연구팀 논문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와 슈퍼엘니뇨가 결합된 영향으로 2023~2029년 최소 3조 달러(4017조원) 수준의 경제 성장 둔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구팀은 2100년까지 그 손실 금액이 84조 달러(11경 2476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단 세계 각국은 역사상 최악의 불별더위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기후변화 주범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 배출 세계 1·2위인 미국과 중국은 전날 기후변화 특사끼리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여지가 남아 있다"며 회원국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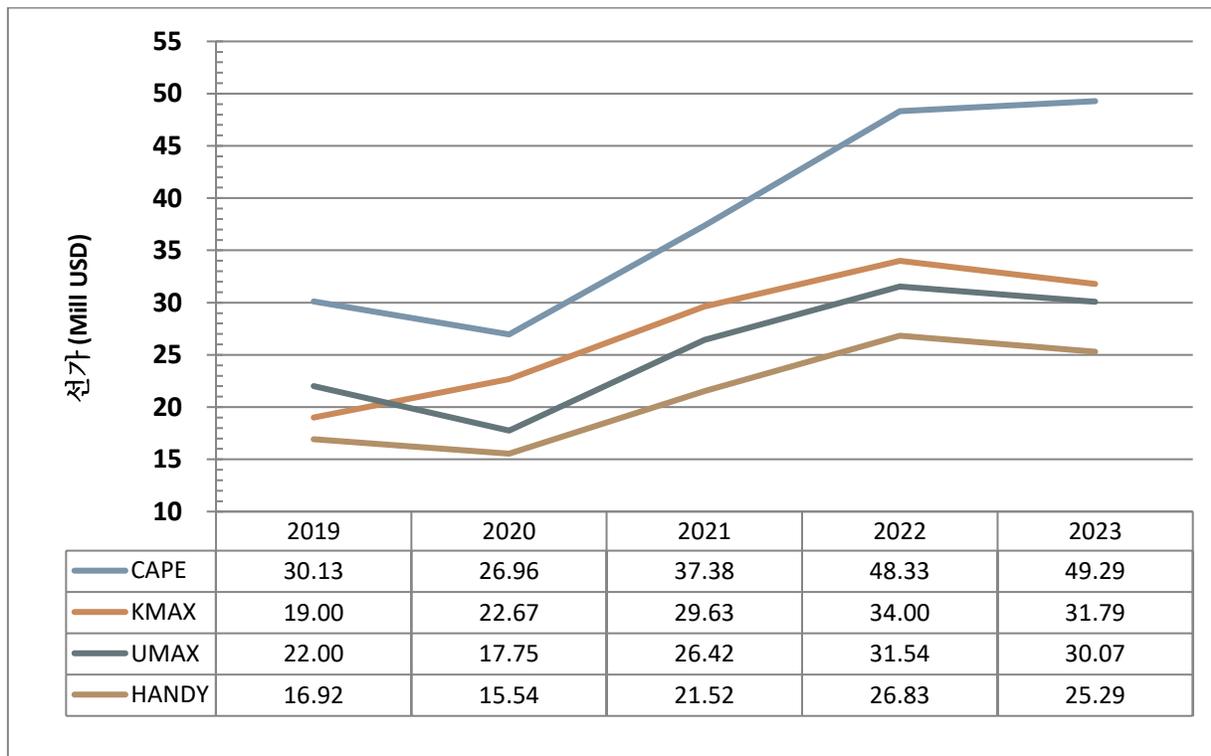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

연평균 선가	2019	2020	2021	2022	2023
<b>Capesize 180K</b> <small>*Eco-design based since 2021</small>	30.13	26.96	37.38	48.33	49.29
	-14.34%	-10.51%	38.64%	--	1.97%
<b>Kamsarmax 82K</b> <small>*76k before 2020</small>	19.00	22.67	29.63	34.00	31.79
	0.42%	19.30%	30.70%	14.75%	-6.51%
<b>Ultramax 60-61K</b>	22.00	17.75	26.42	31.54	30.07
	--	-19.32%	48.83%	19.40%	-4.66%
<b>SMAX 58K</b> <small>*Data available before 2021</small>	17.17	15.92	--	--	
	-4.20%	-7.28%	--	--	
<b>Handysize 37K</b>	16.92	15.54	21.52	26.83	25.29
	12.18%	-8.13%	38.47%	24.69%	-5.77%

### □ BC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 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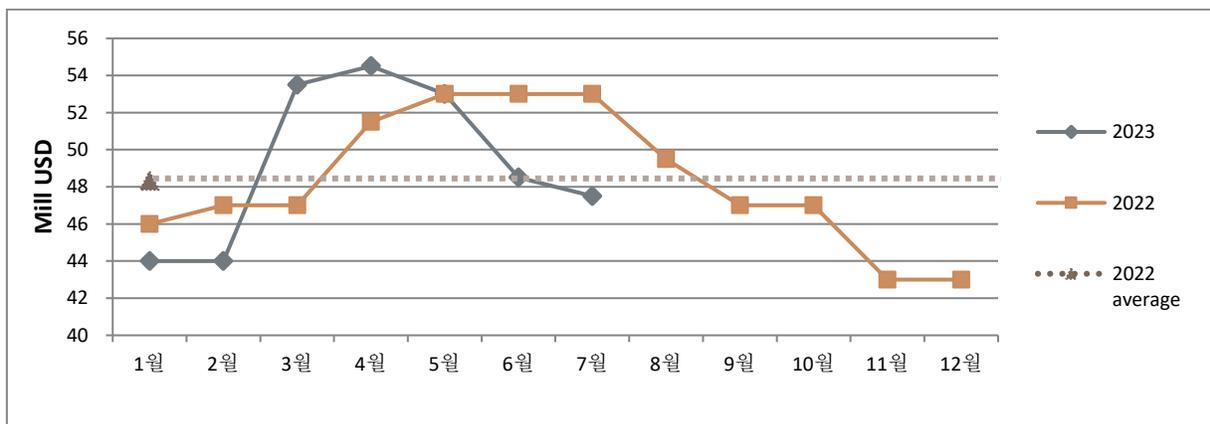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202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평균
CAPE (180K, Eco.)	선가	44.00	44.00	53.50	54.50	53.00	48.50	47.50	49.29
	전월대비	2.3%	0.0%	21.6%	1.9%	-2.8%	-8.5%	-2.1%	--
	전년대비	-4.3%	-6.4%	13.8%	5.8%	0.0%	-8.5%	-10.4%	2.0%
KMAX (82K)	선가	30.00	30.00	32.50	34.00	33.00	31.50	31.50	31.79
	전월대비	0.0%	0.0%	8.3%	4.6%	-2.9%	-4.5%	0.0%	--
	전년대비	-11.8%	-13.0%	-8.5%	-6.8%	-13.2%	-17.1%	-12.5%	-6.5%
UMAX (60-61K)	선가	28.50	28.50	31.50	32.00	31.00	29.50	29.50	30.07
	전월대비	1.8%	0.0%	10.5%	1.6%	-3.1%	-4.8%	0.0%	--
	전년대비	-6.6%	-12.3%	-4.5%	-5.9%	-8.8%	-14.5%	-10.6%	-4.7%
HANDY (37K)	선가	24.50	24.50	26.00	26.50	26.00	25.00	24.50	25.29
	전월대비	4.3%	0.0%	6.1%	1.9%	-1.9%	-3.8%	-2.0%	--
	전년대비	-10.9%	-12.5%	-7.1%	-7.0%	-8.8%	-12.3%	-14.0%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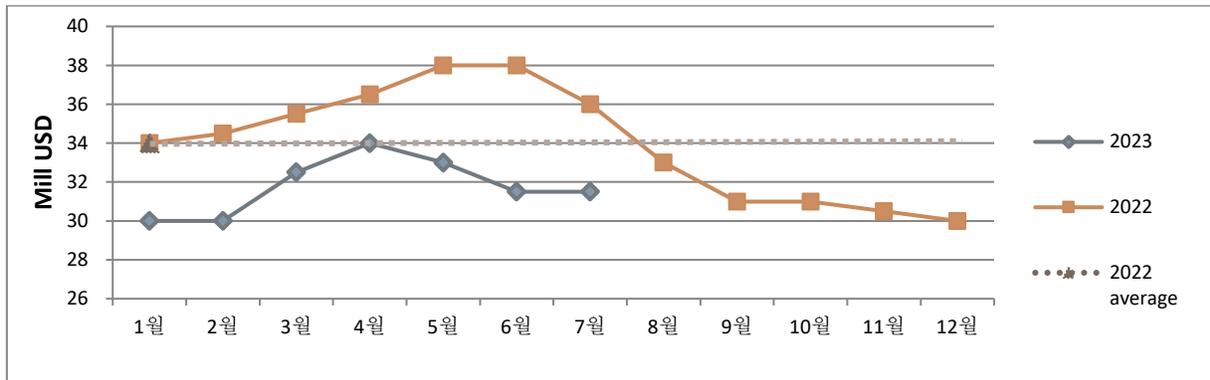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평균
CAPE (180K, Eco.)	46.00	47.00	47.00	51.50	53.00	53.00	53.00	48.33
KMAX (82K)	34.00	34.50	35.50	36.50	38.00	38.00	36.00	34.00
SMAX (58K)	30.50	32.50	33.00	34.00	34.00	34.50	33.00	31.54
HANDY (37K)	27.50	28.00	28.00	28.50	28.50	28.50	28.50	26.83

###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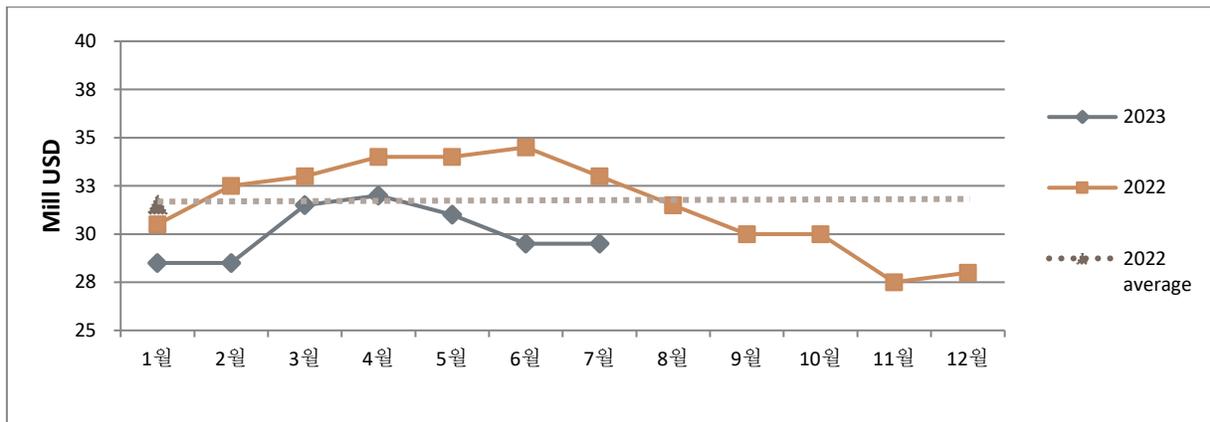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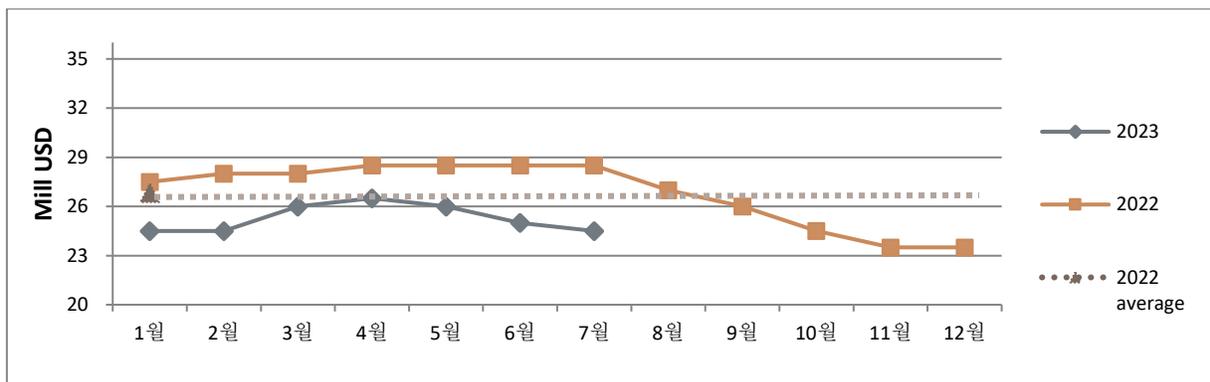
### □ Kamsarmax



### □ Ultramax & Supramax



### □ Handy





## II . BULK CARRIER

###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BLUE HORIZON	207,947	2012	CHINA	B&W		33.5	Undisclosed buyer
BC	CLEAR HORIZON	207,947	2012	CHINA	B&W		33.5	
BC	SHIOSAI	176,827	2009	JAPAN	B&W		20.85	Chinese buyer
BC	DESPINA D	76,633	2004	JAPAN	B&W		10.5	Undisclosed buyer
BC	DEVBULK GULTEN	55,865	2015	JAPAN	B&W	C 4x30t	22.6	Undisclosed buyer, eco
BC	CECILIA	34,095	2010	KOREA	B&W	C 4x30t	13	Undisclosed buyer
BC	SHENG LE A	28,399	1997	JAPAN	B&W	C 4x30.5t	4.3	Chinese buyer, log fit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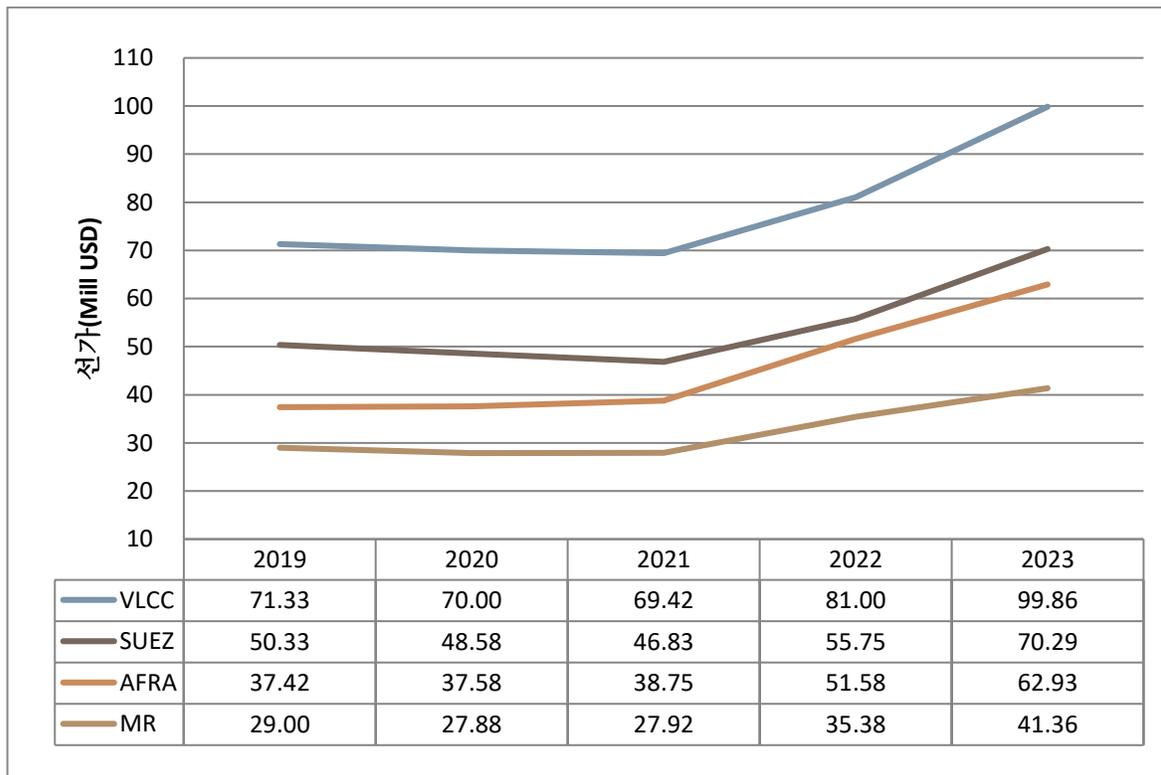
### III. TANKER

(◆선령 5년 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VLCC (310K)	71.33	70.00	69.42	81.00	99.86
	10.73%	-1.87%	-0.83%	16.69%	23.28%
Suezmax (160K)	50.33	48.58	46.83	55.75	70.29
	15.60%	-3.48%	-3.60%	19.04%	26.07%
Aframax (105K)	37.42	37.58	38.75	51.58	62.93
	17.85%	.45%	3.10%	33.12%	21.99%
MR (51K) <small>*Based on 49K till 2018</small>	29.00	27.88	27.92	35.38	41.36
	9.43%	-3.88%	.15%	26.72%	16.91%

#### □ TANKER 연평균 선가

◆선령 5년 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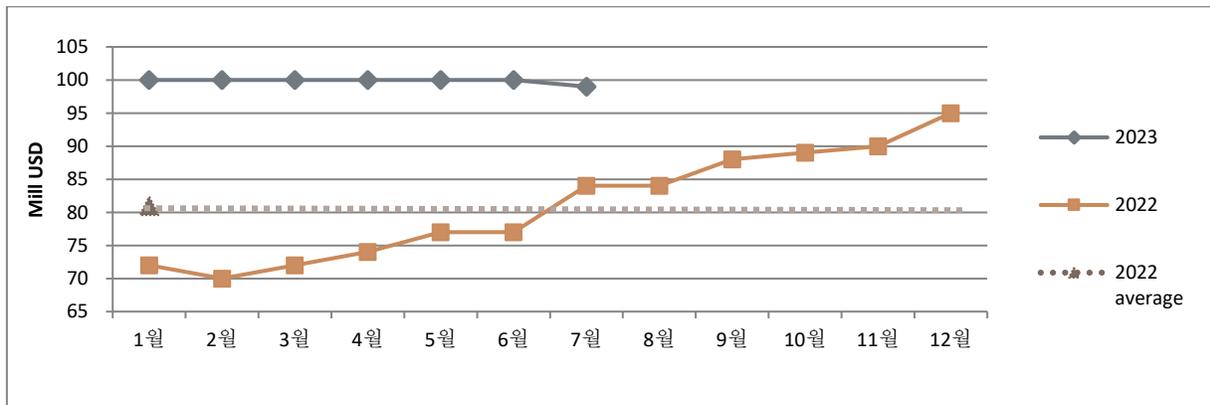




## III. TANKER

202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평균
VLCC 310K	선가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9.00	99.86
	전월대비	5.3%	0.0%	0.0%	0.0%	0.0%	0.0%	-1.0%	-
	전년대비	38.9%	42.9%	38.9%	35.1%	29.9%	29.9%	17.9%	23.3%
SUEZ 160K	선가	68.00	68.00	68.50	68.50	74.00	73.00	72.00	70.29
	전월대비	4.6%	0.0%	0.7%	0.0%	8.0%	-1.4%	-1.4%	-
	전년대비	41.7%	44.7%	39.8%	34.3%	42.3%	35.2%	24.1%	26.1%
AFRA 105K	선가	62.50	62.50	62.50	62.50	63.50	63.50	63.50	62.93
	전월대비	4.2%	0.0%	0.0%	0.0%	1.6%	0.0%	0.0%	-
	전년대비	38.9%	38.9%	38.9%	33.0%	29.6%	29.6%	19.8%	22.0%
MR 51K	선가	41.50	41.50	41.50	42.00	42.00	41.00	40.00	41.36
	전월대비	3.8%	0.0%	0.0%	1.2%	0.0%	-2.4%	-2.4%	-
	전년대비	38.3%	38.3%	43.1%	29.2%	25.4%	22.4%	8.1%	16.9%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year 평균
VLCC		72.00	70.00	72.00	74.00	77.00	77.00	84.00	81.00
SUEZ		48.00	47.00	49.00	51.00	52.00	54.00	58.00	55.75
AFRA		45.00	45.00	45.00	47.00	49.00	49.00	53.00	51.58
MR		30.00	30.00	29.00	32.50	33.50	33.50	37.00	3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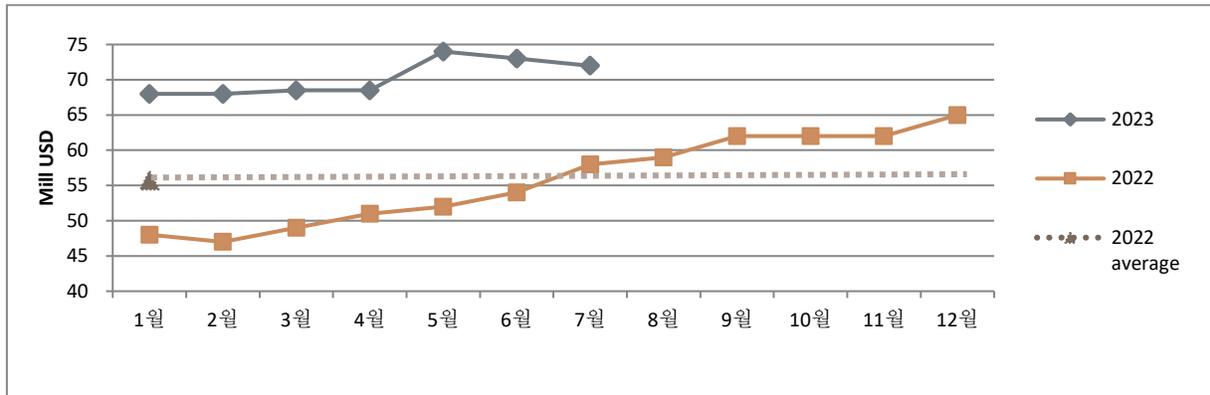
###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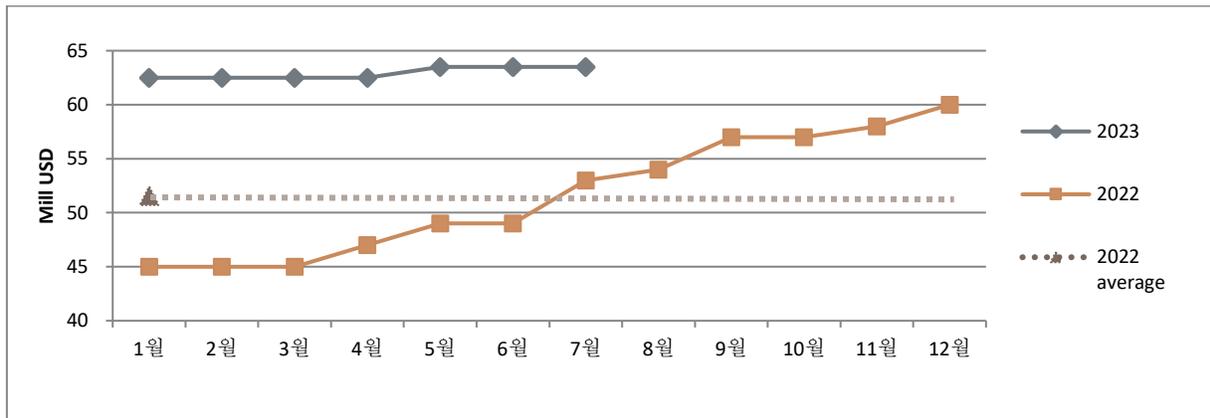


###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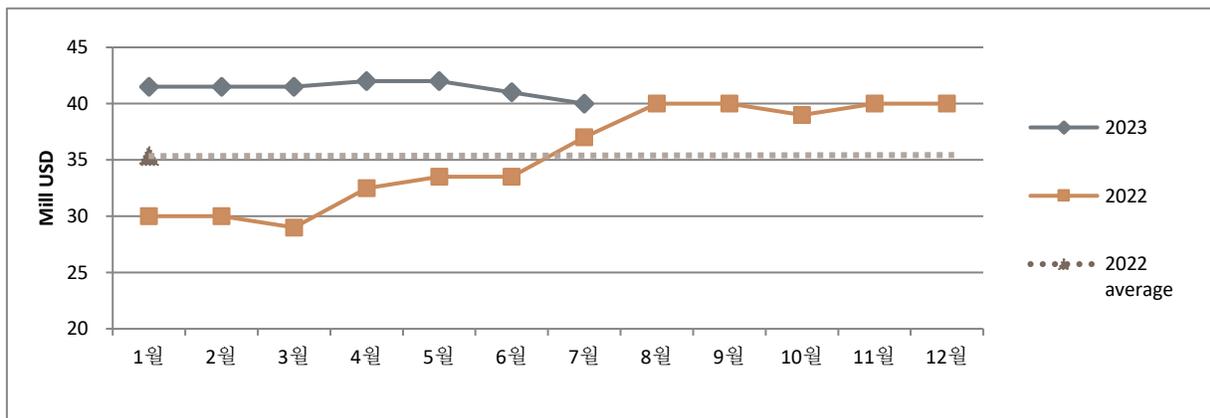
#### □ SUEZMAX-160K



#### □ AFRAMAX-105K



#### □ MR-51K





### III. TANKER

#### Tank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TORNADO A	105,344	2003	JAPAN	SULZER		24.75	Undisclosed buyer
TANKER	PRESIDENT I	65,112	2007	CROATIA	B&W		28.6	Italian buyer, ice class 1B, epoxy coated
OIL/CHEM	ATHENIA	8,828	2008	CHINA	YAN	2	4.5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OIL/CHEM	DONNA	65,065	2006	CROATIA	B&W	3	21	Undisclosed buyer, ice class 1B, epoxy coated
OIL/CHEM	MANDALA	65,125	2006	CROATIA	B&W	3	21	Undisclosed buyer, ice class 1B, epoxy coated
OIL/CHEM	ELANDRA CORALLO	50,695	2008	KOREA	B&W	2&3	23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OIL/CHEM	CASSIOPEIA II	50,695	2008	KOREA	B&W	3	23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LPG	DEVON	54,004	2009	KOREA	B&W	LPG	--	Indian buyer (Torino Shipmanagement)
LPG	TOLEDO	54,004	2008	KOREA	B&W	LPG	--	

### III. TANKER

####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MH HAMBURG	72,982	2009	JAPAN	B&W	6350	TEU	32	German buyer (Foroohari Schiff), scrubber fitted
CONT	ZHONG GU JIANG SU	63,381	2010	ROMANIA (KOR)	B&W	4963	TEU	--	Swiss buyer (MSC)
CONT	MAERSK LAUNCESTON	62,994	2005	DENMARK	SULZ	4533	TEU	--	Swiss buyer (MSC)
CONT	ZIM YOKOHAMA	50,689	2007	CHINA	B&W	4250	TEU		
CONT	ZIM VANCOUVER	50,689	2007	CHINA	B&W	4250	TEU	80-4EB	Swiss buyer
CONT	ZIM SHEKOU	50,689	2007	CHINA	B&W	4250	TEU		
CONT	ZIM QINGDAO	50,689	2007	CHINA	B&W	4250	TEU		
CONT	WAN HAI 267	23,200	2002	JAPAN	B&W	1662	TEU	--	Indian buyer
CONT	A XINXIA	12,553	2007	JAPAN	B&W	907	TEU	8	Vietnamese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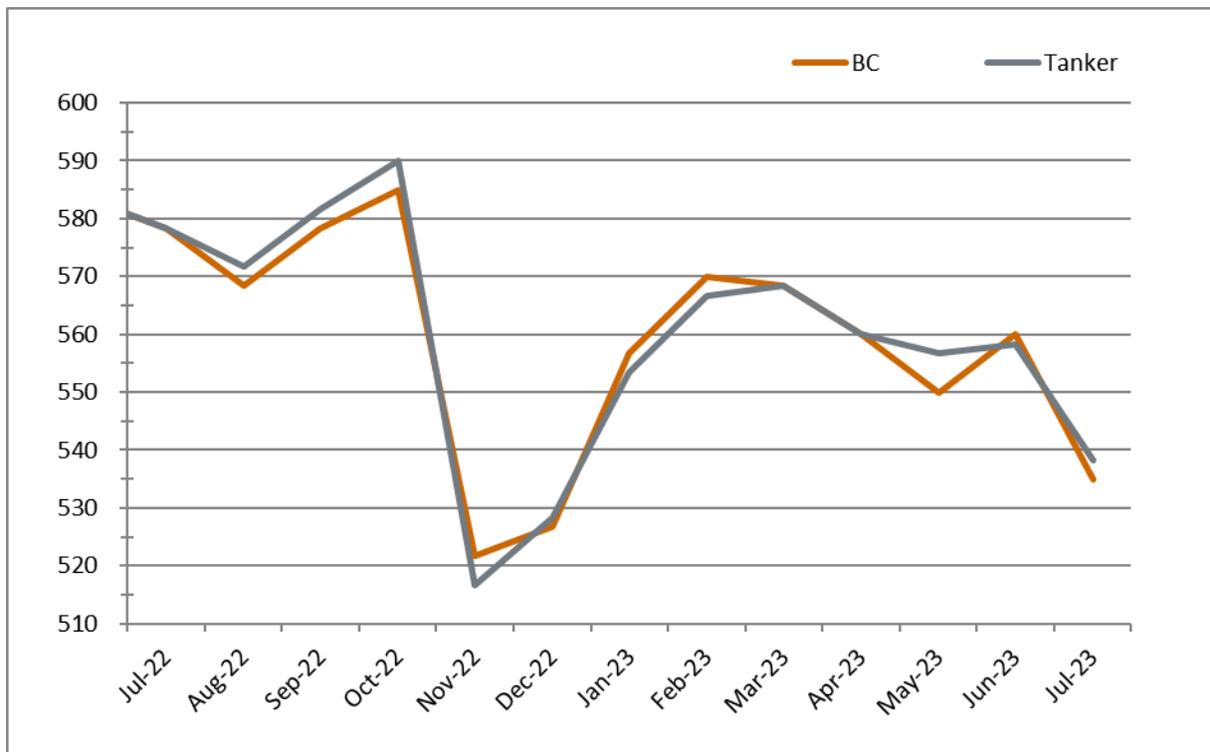


## IV. DEMOLITION

### 1) 해체선가

	2021 Average		2022 Average		2023 Average		2022 July	2023 July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USD/LDT	MoM	YoY
TANKER	526.81	52.9%	590.28	12.0%	557.38	-5.6%	578.33	538.33	-3.6%	-6.9%
BC	529.17	53.6%	588.56	70.8%	557.14	-5.3%	578.33	535.00	-4.5%	-7.5%

❖ 기준 : 인도 해체선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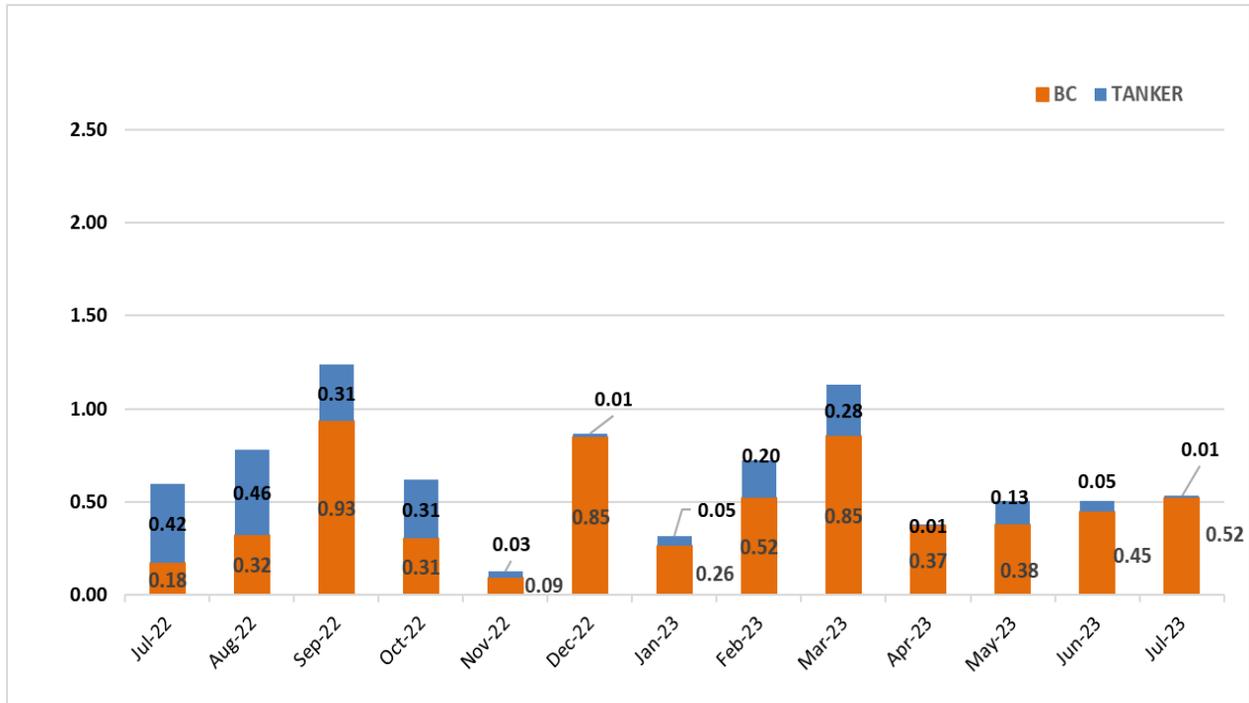
## IV. DEMOLITION

### 2) 해체선 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21		2022		2022 July		2023 July			
	Million DWT	No. of Vessel	Million DWT	No. of Vessel	Million DWT	No. of Vessel	Million DWT	YoY	No. of Vessel	YoY
TANKER	15.66	315	6.50	134	0.42	5	0.01	-97.1%	3	-40.0%
*BC	6.34	123	4.48	63	0.18	3	0.52	198.6%	13	333.3%

\*BC incl. General cargo vessel

###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 IV. DEMOLITION

---

###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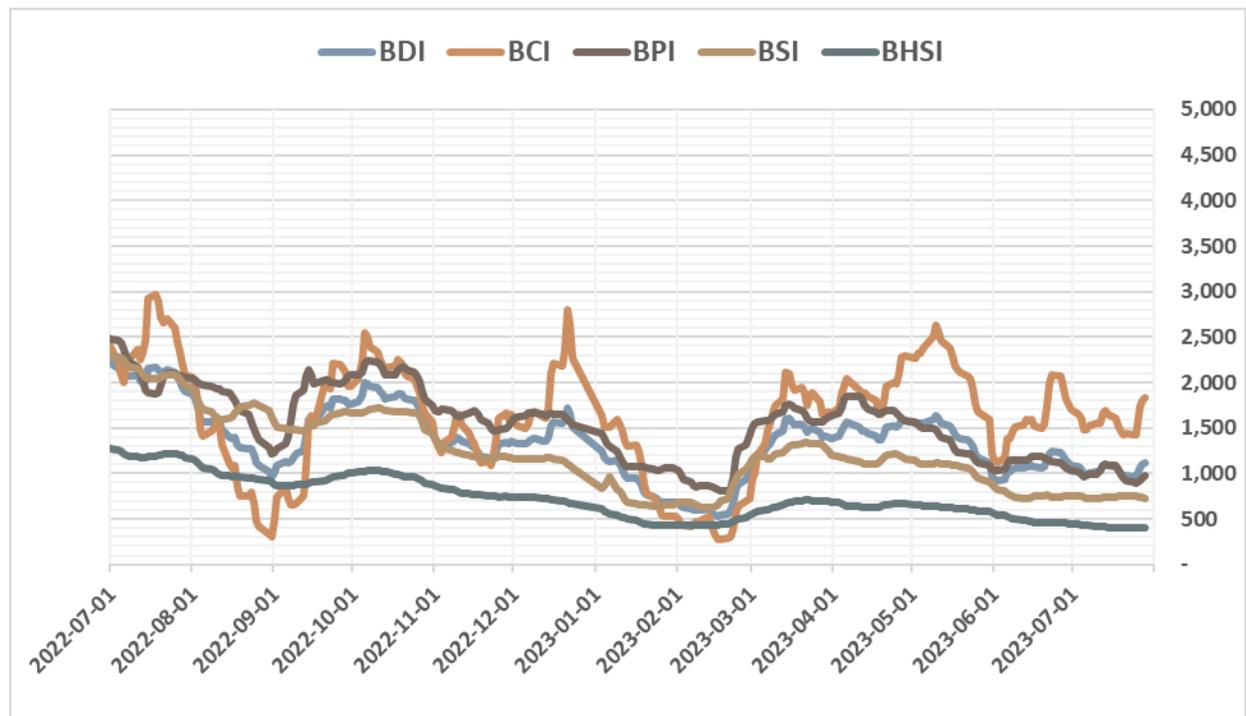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BC	GREAT WENWU	68,000	9,759	1994	JAPAN	B&W	465	BANGLADESHI
CONT	SINOKOR TIANJIN	11,400	4,672	1998	CHINA	B&W	622	BANGLADESHI, incl. 250T ROB



## V . KEY INDICATORS

### 1) Baltic Index

	2023-07-28	2023-07-21	CHANGE	1 Year High	1 Year Low
BDI	1,110	978	▲132.00	2,214	530
BCI	1,830	1,442	▲388.00	2,967	271
BPI	975	924	▲51.00	2,477	809
BSI	726	758	▼32.00	2,290	625
BHSI	396	400	▼4.00	1,276	396





## V . KEY INDICATORS

### 2) Bunker Pric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VLSFO	613.50	▲40.00	590.50	▲35.50	589.00	▲19.50
MGO	854.00	▲66.00	859.50	▲83.00	862.00	▲82.00
LSMGO	854.00	▲66.00	859.50	▲83.00	-	-
IFO380	533.50	▲24.50	524.50	▲35.00	505.50	▲27.00

❖기준일 : 07 월 28 일 기준

### 3) Exchange Rate

구분	2023-07-28	2023-07-21	CHANGE
미국 USD	1273.40	1265.80	▲7.60
영국 GBP	1629.32	1629.40	▼0.08
유로 EUR	1397.94	1409.66	▼11.72
중국 CNY	178.33	175.97	▲2.36
일본 JPY (100)	914.40	904.37	▲10.03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 VI. ISSUE & TREND

### [시사 상식] SBTi

◆ SBTi(과학기반목표이니셔티브: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는 기업·단체 등의 탄소 감축에 대해 과학적 방법에 따른 측정과 계획실행을 요구하는 이니셔티브를 말한다.

SBTi는 파리기후협약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운동에 핵심기구인 세계자원연구소(WRI),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유엔 글로벌컴팩트(UNGC), 세계자연기금(WWF) 등이 협력해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온실가스 배출 삭감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SBTi에 가입하면 2년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한 후 공개해야 한다. SBTi는 기업이 최신 기후 과학에 따라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 목표 설정의 방법 등을 제공한다. 전 세계적으로 4천개 이상의 기업이 SBTi를 통해 기후과학에 기반한 배출 감소 목표를 설정해 탄소중립 경제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2천 300개 이상의 기업이 SBTi의 과학 기반 탄소중립 목표를 승인받았다.

SBTi는 기업의 자체 탄소 상쇄를 90% 비중으로 한다. 탄소배출권 구매를 통한 탄소 상쇄는 10%만 인정한다. SBTi는 2024년 초에 금융 부문의 과학 기반 탄소중립 목표 설정을 위한 전 세계 최초 표준안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26일 국제회계기준(IFRS)은 산하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통해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지속가능성 공시인 IFRS S1과 S2의 최종 기준을 발표했다. ISSB에서 SBTi가 채택되며 기업과 금융기관 등은 SBTi와 동일한 'IFRS S2(기후 관련 공시)'의 스코프 3(SCOPE3·연관배출) 범위 공시를 주목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제품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스코프 1)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등을 포함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스코프 2)이 있다. 반면 스코프 3은 일반 기업의 경우 공급망과 협력업체, 금융기관은 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대상 기업의 탄소배출 등도 감축 목표에 포함된다. 자산 포트폴리오를 포함해 금융배출량이라고도 불린다.

국내에서는 한국지속가능성위원회(KSSB)를 통해 연내 ISSB에 기반한 ESG 공시 확정안이 나올 예정이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



## VII. CONTACT DETAILS

STL GLOBAL CO., LTD.			
<b>Marino Hwang(황 재 웅)</b> President T. 070-7771-6400			
<b>Fleet &amp; Chartering Operation</b> biz@stlkorea.com	<b>Sancho Kim(김 현 진)</b> Managing Director T. 070-7771-6404	<b>H.S. Lee(이 현 성)</b> Director T. 070-7771-6412	
	<b>Mike Hong(홍 창 목)</b> Director T. 070-7771-6417	<b>Henry S.H. Oh(오 수 현)</b> Deputy General Manager T. 070-7771-6402	
	<b>Anna Lee(이 혜 란)</b> Manager T. 070-7771-6403	<b>Joovi Park(박 주 비)</b> Assistant Manager T. 070-7771-6419	
<b>Agency Operation</b> operation@stlkorea.com	<b>Jennifer Park(박 영 단)</b> Manager T. 070-7771-6407	<b>Hayden Son(손 호 영)</b> Assistant Manager T. 070-7771-6401	
<b>Ferroalloy Logistics &amp; Warehouse Management</b> ops@stlkorea.com	<b>Jena Ahn(안 지 영)</b> Deputy General Manager T. 070-7771-6405	<b>Joanne Jin(진 정 식)</b> Manager T. 070-7771-6406	
STL SHIPPING CO., LTD.			
<b>Sale and Purchase Broking</b> snp@stlkorea.com	<b>Neal S.I. Kwon(권 순 일)</b> President T. 070-7771-6410		
	<b>Jack Kim(김 종 수)</b> Director T. 070-7771-6411	<b>Nova Cha(차 혜 정)</b> Team member T. 070-7771-6409	
T. 02-776-0840(Rep.)   E. seoul@stlkorea.com   W. www.stlkorea.com   (04146) 101-13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STL G-TOUR		Jeonnam Yacht Academy	
기업/일반 단체 항공예약 실장 김 영 하	T. 1661-8388 T. 070-4800-0151 W. www.stlgtour.com E. tour@stlgtour.com	보트/요트 면허취득 실장 이 진 행 대리 이 정 택	T. 061-247-0331 T. 010-2777-4027 W. www.stlyacht.com E. academy@stlyacht.com